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김홍식 장로 / AFF USA 이사장

지진과 아프리카

근래에 터키, 시리아에서 강진이 났다. 100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5-35km 두께로 지구 표면에 약 2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 뜨거운 액체로 되어 있는 지구 내부 위를 떠다니는 형상이며 계속 이동을 한다. 판이 나란히 같은 속도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없으나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판의 가장자리 경계면에서 판 사이의 미끄러짐이나 판이 갈라지는 변화가 발생하여 축적되었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지진이 발생된다. 지구의 지름이 약 12,700km 이니, 지구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은 피부 두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진이 났다는 것은 지구 몸의 피부가 찢어지고 갈라진 것이다. 지진을 보면서 인간은 피부 위에 있는 얇은 털이나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지구를 한 몸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에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겼는데 지진의 피해를 직접 안 보았다고, 우리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지질학적으로는 안정된 아프리카이지만 지진을 만난 곳보다 더 비극적인 역사로 인해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아프리카는 세 번째로 큰 대륙에 12억이 넘는 인구나 54개 국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아프리카는 아시아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곳이다. 한국과 이란이 같은 아시아임에도 많이 다른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적도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문화가 비슷할 리가 없다.

흔히 지칭하는 아프리카는 주로 사하라 이남의 흑인계 아프리카를

의미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만 따져도 대단히 광활한 지역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하라 사막을 분기점으로 사막 이북은 넓은 의미에서 중동 문화권에 포함되는 반면, 이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많이 포함한다.

15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항해 시대 이후 아프리카의 서해안 항로를 따라 아프리카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붙여졌던 '상아해안', '황금해안', '노예해안' 등의 명칭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후 19세기에 서구 열강들이 땅 크기를 균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지도상에 줄을 긋는 것처럼 만든 국경선이 현재의 많은 아프리카 각국의 국경선이 되었다. 아프리카 국경선의 반듯반듯한 모양새는 바로 이것이 원인이다. 원래 국경은 강이나 산처럼 국경으로 쓰기 편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고 그냥 선을 쭉 그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 결과 수천 개의 정체성 및 종족이 50여 개 국가에 합쳐졌다. 하지만 서로 원수인 여러 민족이 한 국가에 존재하거나 같은 민족이 나뉘기도 했고, 이외에도 종교, 인종 분쟁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찢어진 대륙의 역사만큼 상처받고 갈라져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서구나 특정한 나라의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을 존중해주며, 희생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대로 섬기는 길 밖에는 없다.

여러분의 귀염등이 이미재입니다 -!
당신과 찰떡궁합 AFF 프로젝트를
이어주려고 오늘도 달려왔어요.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탄자니아



모처럼의 주말에도
자기계발할 생각에 행복한
야망 가득 갓생러인 당신이라면!?

어.답.탄
(어차피 답은 탄자니아 무힘빌리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컨설팅 사업)

이미재는 본 사업을 통해 무힘빌리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증진시키고 4차병원(최종 진료기관)과 교육/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AFF 퍼펙트 매치 사업을 찾을 때까지
이미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⑤

탄자니아
무힘빌리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컨설팅 사업

2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KOFI(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로부터
지원 받아 무힘빌리 음롱간질라
국립병원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무힘빌리 음롱간질라 병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증진시키고
4차병원(최종 진료기관)과
교육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⑤

또한,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의료인력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탄자니아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5

사진 출처: MEDICOPRESS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이미재의 사업은? ⑤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콩고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찰떡궁합 AFF 시리즈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 !

‘아이디어가 넘치는 나, 특별한 게 좋아’

그렇다면 [DR 콩고 피그미 민족 현지 언어(키텐보)]

보존 사업은 어떠세요?

키텐보는 DR 콩고 피그미 민족의 언어로,

현재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 키텐보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 표기 체계를 만들어 보급하고,

관련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아프리카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아미재의 [DR 콩고 현지 언어 보존 사업]과 함께 해요~~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⑥

DR 콩고
피그미 민족 현지 언어
키텐보 보존 사업

사진 출처: KOREATIMES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⑥

아프리카미래재단은 피그미 민족의 언어인 키텐보의 한글 표기 문자 '키텐보정음문자체계'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⑥

키텐보는 피그미족 말로 '코끼리아'라는 뜻입니다.

사라져가는 키텐보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로 표기한 키텐보 언어체계를 만들어 보급하고

키텐보정음문자체계 교재를 제작해 출판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4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⑥

어 구아지카 어
치페만 3rd





아프리카 미래재단 남아공 지부

지부장 이규성, 권정화 선교사

남아공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도시 빈민가인 타운십은 더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 빈민촌 타운십 형성과 역사는 ‘아파트헤이트’라고 부르는 인종 차별 정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이들을 분리 시키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뿌리깊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타운십에는 다양한 현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아프리카 토착 신앙과 혼합된 아프리카 독립교단들, 그리고 아프리카 토착 신앙을 받아드려 조상신 숭배도 인정하는 이단 성향의 교회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고 성장하고 있어서, 빈민촌 타운십 안에 올바른 신앙으로 복음을 잘 지켜내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선교적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대를 이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선교 사역을 섬기는 MK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004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18년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북부 크라이폰테인(Kraaifontein) 구, 왈라스딘(Wallacedene) 빈민촌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를 감당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사역

저희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사역의 목표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연약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스프키친 무료급식 사역

다섯 군데의 스프키친을 통하여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영육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보듬어 돌보며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세워 가고 있습니다.

부쿠패밀리(Vuku Family) 성경공부 사역

사역지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명씩 짝을 만들어 참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 선 리더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경험케 양육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7주간의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하여 제자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선교회 태양광 전기 사역

전기가 없거나 전기 공급되지 않는 낙후된 선교지의 교회에 태양광 LED 전기, 전등 그리고 십자가를 설치해주는 사역을 통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나누어 선교지에 중심이 되게 하며, 교회 사역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정 모두가 말씀 충만을 경험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 현재 건축 중인 “살롬 주의 군사교회와 선교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건축 자재와 물량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현재 운영중인 다섯 군데의 스프키친 사역들을 통하여 영육으로 굶주리고 가난한 빈민촌의 어린이들과 그 가정들이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부쿠 패밀리 성경공부 모임에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 미래재단 우간다 협력

김세현 선교사

1.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고백을 하게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간다에서는 버스나 개인 차량에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REAT, GOD IS MY SHEPHERD. 운전하며 아멘, 아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을 더하소서.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프리카 성도들 되게 하소서.

2. 이번 기도회는 내전으로 마을 전체가 반군들에 의해 점령당하여 다 마을에서 겨난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고향에 돌아와서 새로이 마을이 시작된 아초릭부족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기도회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돌립니다. 배고픔도 잊고 기도합니다. 금식을 더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회를 통해 표현되는 이들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3. 노회장인 올라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대로 복사하여 번역문을 올립니다.

“We ended three days revival prayers well yesterday. The Lord revealed to us many things which the enemies has stolen from today's Church. And spoke that He is close to His people(Deut. 4:7), will hear their cry and restore back all their blessings if we diligently seek Him. However, God emphasized holiness, forgiveness, faithfulness, trustworthiness, and stewardship among His Church. As we prayed to Him, He answered all our prayers. We came back with

the full joy and blessings of God.

Glory to Him who has called us into this covenant relationship in the blood of His son Jesus Christ. Amen.”

“우리들은 어제 3일간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이 오늘날 교회로부터 뺏은 바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은혜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7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만 한다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복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속성인 거룩, 용서, 믿음, 신실함, 그리고 청지기 사명을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완전한 기쁨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은혜의 계약 관계속으로 불러주신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4.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비록 에즈베리 부흥같은 계속된 기도회는 아니었지만 작은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척박한 아프리카의 궁핍한 삶이지만 주먹을 쥐게 하고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주님을 계속 바라봅시다. 모든 기도의 증보자들이여! 다시 한 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러 떠납시다!

“아프리카 피그미 사역 소개”

최관신 목사/아프리카 피그미 선교사



피그미 부족은?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피그미 부족을 돕는 사역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 키부주(Sud-Kivu Province)의 부냐키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340,000 명 중에 75~80%가 피그미 부족이다. 이들은 수렵 채취를 하는 부족으로 성인의 키는 평균 130~140cm 정도이며, 현재 지구상에 100만 여명이 생존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역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 키부주(Sud-Kivu Province)의 Kalehe Territory 의 키부호(Kivu Lake) 주변과 부냐키리 지역의 피그미족과 콩고의 내전을 피하여 르완다의 서부 국경지역인 카멤베 (Kamembe) 지역으로 넘어와 사는 피그미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남부 키부주 피그미부족의 현황과 실태 :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an of Congo)의 열대우림 숲속에서 수렵채취를 하며 살아가던 피그미 부족은 1970년도 초에 국립공원법이 생기면서 희귀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숲에서 추방당하여 살고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숲에서 쫓겨나며, 문화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낯선 지역에서 타 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사지를 줄도 모르고 정착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피그미 부족들은, 농사를 배워서 남의 땅이나 빈 공터에 소규모의 농사를 짓든지,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은 숲 만드는 것을 배워 숲을 만들어 팔아서 살아가지만, 하루 한끼의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부족민들은 도둑질과 구걸로 생계를 연명하며 살아 간다.





BMCC 간호대학 건축 및 운영

- a. 간호대학 건축 : 2023. 1.14일 개교, 강의 진행 중
- b. 등록 학생수 85명, 학비 및 식사지원(\$300/1인당/1년), 간호학, 조산학
- c. 인터넷 강의 강사 모집, 현지 방문하여 인텐시브 강의할 강사요원 모집
- d. 콩고정부의 의료관련 대학 허가조건인 Health Center의 건축을 위하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지원으로 대학 캠퍼스 안에 조산병원의 건축을 시작하였다(2023. 4월 1일 부지 매입 완료하고 기초 공사 시작)

사역을 위한 참여 방법

- a. 단기 선교 : 콩고와 르완다의 교회와 피그미 마을을 방문하여 설교, 세미나, 복음전도활동, 한글, 농.축산 교육, 여성리더 대상의 교육, 간호대학 강의, 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특강 등

b. 재정적인 지원

- (1) 치렘보 성경 번역 : \$10,000(1책 1000권 출간 기준)
- (2) 치렘보 강사 교육 비용 \$1,000(교사 연수 및 주민들을 위한 집체 교육 비용)
- (3) 봉제학교 지원 \$200(재봉틀 1대 및 실습비 기준)
- (4) 피그미 마을 식량 지원(\$200)
- (5) BMCC 간호대학 학생 장학금(\$300/년 1회)
- (6) BMCC 기숙사 건축(\$30,000)
- (7) BMCC 캠퍼스 내 조산병원 건축(\$50,000)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GBC 아름다운 동행, AFF 사역 소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김홍식 이사장과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는 2월 8일 GBC복음방송 '아름다운 동행'에 출연하여 중남아 아프리카 비전 트립 소식과 간증을 나누었다.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남아프리카 비전 트립 소식을 나누었는데, 전체적인 개요와 남아공화국에서 있는 제18회 중남부 아프리카한인선교사대회 참가와 두 차례 의료 봉사, 한-남아공화국 수교 30주년 기념 의료 상담과 봉사 소식과 에스와티니에서의 의료 상담과 봉사, 국제의학학술대회,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와 현지인교회 방문 사역을 나삼진 사무총장이, 잠비아 제라보건대학 준공식과 현지 의대생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및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교와 MCM병원 방문을 김홍식 이사장이 담당해 은혜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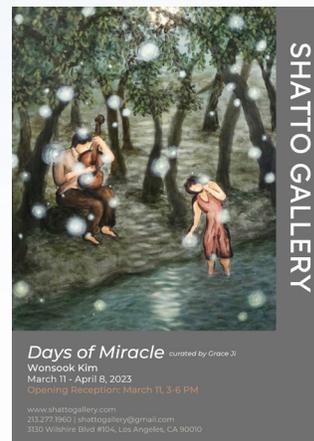
DR콩고 피그미 사역 2만 불 지원

아프리카미래재단 USA의 아틀란타지부는 DR콩고 피그미 사역을 위해 2만 달러를 후원하였다. 콩고 민주 공화국과 르완다의 피그미 부족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최관신 선교사는 DR콩고 남부 키부주(Sud-Kivu Province)에 위치한 부냐키리(Bunyakiri)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차로 7시간 걸리는 콩고와의 국경도시인 루씨지(Rusizi)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 키부주의 수도인 부카부로 넘어가서, 트럭과 오토바이로 여섯 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 사역이다.

최 선교사는 4월 20일-4월 26일 기간 동안 아틀란타 지역의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이사 교회인 어거스타 한인 감리교회와 예수소망교회를 방문해 피그미 사역 소개와 선교 보고를 하였고,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틀란타지부와 함께 피그미족 사역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교회를 비롯해 여러 협력자들이 사역에 동역하기로 하였다. 피그미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그미 선교사인 최관신 선교사(koanshinchoi@gmail.com, 415-672-7011)이나, 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틀란타의 이경호 지부장(1-575-528-9478)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김원숙 화가 전시회 참석

아프리카 미래재단 한국과 미국 임원들은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샤토 갤러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미래재단 과 오랫동안 교류하고 협력해 온 김원숙 화가의 'Days of Miracle'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김원숙 화가의 작품은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전시회는 4월 8일까지 계속 된다. 일리노이주립대학 미술대학은 김원숙 화가의 이름을 붙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인화가다.





아프리카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소개하였고, 김억 사무총장과 함께 이어지는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샌프란/산호세 지부는 박석현 목사가 이사장을 맡기로 하였고, 전문인력들이 다수 포함된 조직을 4월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샌프란/산호세지부는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의 아프리카 사역 소개, 동원, 후원 등의 방법으로 전문인력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AFF 시카고 지부 설립, 이사장 홍건 장로, 대표 채영광 교수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과 함께 3월 15일 저녁 시카고 산수갑산 식당에서 시카고 지부를 결성했다. 이날 김억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종형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박상은 대표가 AFF를 소개하였고, 나삼진 사무총장이 미국법인 사역을 소개하고 시카고지부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시카고지부 설립 행사에서는 이사장 홍건 장로, 김경수 목사, 장춘원 목사, 고훈 목사, 정승호 목사, 임현석 목사, 신홍식 장로, 박경자 PD, 감사로 이준석 회계사가 수고하기로 하였고, 노스웨스턴대학의 채영광 교수가 대표를 맡아 수고하기로 하였다.

AFF USA 지부 소식 샌프란/산호세 지부 설립, 이사장에 박석현 목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과 함께 3월 12일 오후 샌프란/산호세지부를 결성했다. 박상은 대표와 김홍식 이사장, 나삼진 사무총장, 이경호 아틀란타지부장 등이 참여한 이날 설립 행사에서는 김억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석현 목사가 '더 복된 삶'(행 20:31-35)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더 귀한 복을 누리라'도록 말씀을 전했다. 설립 행사에서는 김홍식 미주법인 이사장과 한국 대표 박상은 대표의 인사, 나삼진 미주법인 사무총장의 미주법인 소개와 사역 안내에 이어 박상은 대표가 참석자들의 소개가 있었고, 박석현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박상은 대표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바울과 실라 일행은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갈라디아 등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앞으로 아시아 곧 동부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그들은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다. 그가 꿈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였고(행 16:9), 바울 일행은 이를 '하나님께 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전해지게 되었고, 이후 2천 년 동안 유럽은 세계 역사의 주된 무대가 된 것이다.

한국이 개화하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에서 굴지의 나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기독교와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일찌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는 이를 일본에 전해주었고, 일본의 고대문명은 백제의 도움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쟁에 몰두하며 정파를 나누어 논쟁하는 동안 일본은 15세기 초에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그 힘으로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18세기 말 열강의 각축전이 되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화가 이루어지고, 근대교육과 의료가 도입되고, 남녀의 차별, 반상제도의 철폐로 나라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알렌(Horace N. Allen) 의사 부부가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공사관 공의로 입국해 1890년 은퇴할 때까지 미국북장로교회의 첫 선교사로 일했다. 흔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한 것을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역사에서는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들을 선교사 명부의 첫 자리에 두었다. 한국장로교회가 50주년 행사를 1934년에 가진 것이나, 100주년 기념행사를 1984년 가진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오늘날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라국제보건대학 학장으로 있는 의사 신고고(Dr. Grave Singogo)는 200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의사대회(ICMDA)에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박상은

대표를 만났고, 며칠 동안 같은 방을 사용하며 기독교사의 비전을 나누었다. 그때의 만남은 훗날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잠비아 사역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는 박상은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기독교대생들의 필요로 CMF를 모였는데, 이런 일은 그가 영국 출신의 의료선교사 배도선(Peter Pattison)을 만나면서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누가회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또 그가 의대를 졸업할 때 어디에서 인턴을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할 때 배도선 선교사는 장기려 박사가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을 추천하였고, 흔하지 않게 부산까지 내려가 수련의 생활을 했다. 그는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전인치유, 생명윤리, 의료 선교의 가르침을 받고, 이를 평생 사역의 비전으로 삼았다.

박상은 대표는 배도선 선교사를 만난 후 기독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의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다른 동료들과는 매우 다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조직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의료와 보건과 교육을 특화하는 NGO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16년 동안 50회 이상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나들며 의료와 보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재단과 동역하는 의료선교사들을 통해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의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나라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보건대학이 세워지면서 열악한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고 활동하였던 한국기독교사회,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등도 협력자가 되어 아프리카 의료 보건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닥터 신고고는 아프리카를 돕고자 하는 박 대표의 비전과 사역에 도전을 받고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지금 치소모 병원과 2022년에 설립된 제라보건대학의 CEO로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인 그의 아내도 힘을 합쳐 간호학과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잠비아 기독교 의료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도, 종족도, 나라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 아프리카미래재단
-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3. 1. 1 - 3. 31 / 재정보고

현금자 명단

Andrew / SoYoung Kim, Chong In Kim, James Kim, Joon Hwa Kim, Michelle Y. Lim, Jieun Julia Na,
Andrew Pae, Moses Park, Simon Paek, Young Song, John Yahng, Macheal Yang
김응원 김홍식 / 김정미 나삼진 / 나미애 백형순 신영애 양해종 이승숙 이종남 이홍철 정용희 정진철 태성남 황길남 허철신
새벽이슬교회, OC살롬교회, OC한인교회, 산호세한인장로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서 (2023년 1-3월)

수입부

1월 현금 5,705.00 2월 현금 53,230.00 3월 현금 44,920.00 분기 수입 103,855.00

지출부

사업비 1

마다가스카르 AFF(지부장: 이재환)	3,000.00
남아공 AFF(지부장: 이규성)	3,000.00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	2,000.00
남아공 김재수 선교사	2,000.00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2,000.00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2022)	4,000.00

사업비 2

명성외과대학 체육관 사업(김홍식 지정)	42,000.00
짐바브웨 사업비	20,000.00
DR 콩고 간호대학	20,000.00
아프리카 신학생 장학금(OC한인교회 지정)	2,000.00
한국 AFF	3,371.92
사업비 소계	103,371.92

행사비

지부 설립 예비 (San Jose, Chicago)	814.95
사무비	127.24
홍보비 / 뉴스 레터 출판 / 발송비	2,642.28
GBC 현금	500.00
IRS / 세금	1,659.24
홈페이지 관리비	143.88
행정비	3,189.02
지부 행사비	790.30
송금 수수료 외	422.40
비전트립 경비	4,913.45
행정비 소계	15,202.76
분기 지출 소계	118,574.68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